

# 실향체험의 형상화

- 이호철론 -

배 경 열 \*

## I. 서 론

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체험이다. 특히 그 체험이 개인사를 절대적으로 지배할 만한 역사적 사건일 경우 체험이 압도적 힘을 발인하여 개인의 삶을 좌지우지하기까지 한다. 따라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경험한 역사의 질곡 앞에서 작가는 때론 굴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학이 진정한 힘을 발휘할 때는 체험의 문학이 아닌 체험을 극복하는 문학으로서이다. 특히 서사문학의 경우 체험의 극복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작가의 체험이 객관화의 통로를 거치지 않을 경우 서사문학의 본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비판적 거리와 서사적 객관화를 유지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주관적 낭만성에 빠지거나 추상적 관념의 유희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작가가 경험하는 세계는 어찌 보면 작품창작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1950년대라는 시대적 특수, 상황과 맞물리게 될 경우 그러한 체험의 절대성은 하나의 필연적 요청인 것처럼 보인다. 1950년대 문학을 형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전쟁과 분단체험, 혹은 전쟁의 결과로 직접적으로 야기된 사회 상황이다.

이호철은 1932년 함경남도 원산(시내가 아니고 좀 떨어진 농촌마을로서

---

\* 한국사이버대학교 문예창작학부 조교수

후에 시에 편입되었다.)에서 중농 정도의 집안에 2남 3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 한문을 배웠으나 별 재미를 붙이지는 못했고, 해방되던 해 원산공립중학에 입학, 이때부터 문학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한다. 6·25가 발발하던 해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던 그는 인민군으로 동원되어 전투에 참가했으나 총 한 방 제대로 쏘지 못하고 포로로 붙잡혔다. 북진하는 국군에 묻어 북상하다가 석방되었고, 한 달 남짓 고향에서 지내다가 중공군의 참전으로 다시 후퇴할 때 단신으로 배를 타고 월남하여 부산에 닿았다(1950. 12. 9.). 이로부터 이호철은 가족과 고향으로부터 격리되어 남쪽 땅에서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피난 수도 부산에서 부두노동, 제면소 직공, 미군부대 경비원 등으로 전전하였고, 처음으로 소설습작에 손대어 「오돌할멈」, 「권태」 같은 단편을 썼다. 1953년 서울로 올라왔고 1955년 단편 「탈향」이 황순원의 추천으로 『문학예술』지에 발표되어 작가로서의 길에 들어섰다. 1961년 「관문점」으로 현대문학사 신인상을, 1962년 「답아지는 살들」로 동인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그의 작가적 위치는 확고하게 자리잡혔다. 이상의 경력으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이호철은 스무살 전후 한창나이에 겪은 혹독한 격랑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순탄하게 또 상당히 일찍 소설가로 입신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문인으로서 이름을 내는 것과 생활인으로서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별개의 것임에 틀림없었다. 자라난 고향과 낳아준 부모형제를 떠나 단신 실향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추방되어 뿌리 뽑힌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이호철의 인생과 문학에 있어 근본적인 규정성이다.

그런데, 이호철이 즐겨 다루고 있는 고향 상실의 테마들은 개인적인 내면 의식보다 민족 분단의 역사적 상황과 결부됨으로써 더욱 강렬한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 그의 고향 상실은 민족 분단의 비극이라는 사회적인 차원으로 언제나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설이 평범한 일상인들의 생활공간에서 맴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경우에도, 그 내면에는 분단상황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실향체험은 작품창작에서 원체험을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그

의 작품세계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무엇이 어떤 한 개인의 삶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가를 이호철의 경우 아주 분명하게 보인다. 이호철의 경우 그를 절대적으로 지배한 것은 전쟁과 그로 인한 분단, 그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과 고향에의 그리움, 남한 사회에 뿌리박지 못하고 떠도는 유랑민 의식 등이다. 이러한 체험들이 그의 소설의 출발점을 형성하고 있다.

## II. 분단·이산 체험의 형상화 양상

### 1. 실향의식과 귀향의지의 내면화

‘실향민 의식’이라는 개인적인 피해의식에서 ‘분단의식’이라는 민족사적인 과제로 확대 심화되고 있는 이호철의 소설적 관심의 변화는 그것이 단순한 작가의 정신적인 변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시대의 역사적 전개와 서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된다. 이호철의 소설적 출발은 전후 현실의 황폐성에 대한 인식과 이어진다. 동서 이데올로기의 냉전논리에 의해 남북으로 갈라선 민족이 한데 엉켜 싸워야 했던 6·25전쟁이 휴전으로 종식된 후에, 우리 민족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지독한 혐오뿐이다. 해방 직후 새로운 민족국가의 건설을 꿈꾸었던 감격도 사라졌고, 새로운 정치적 이념도 자취를 감춘다.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린 세대들이 폐허 위에서 발견한 것은 그들이 어느새 상실의 시대의 힘없는 주인 공이 되어버렸다는 엄청난 사실이다. 이호철은 이러한 상황적인 혼동 속에서 이중적인 피해의식을 안고 문단에 나섰다. 그는 고향을 버렸고, 맹목적인 이념도 버렸지만, 실상 그의 실향의식을 메울 수 있는 가능성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더욱 본질적인 고뇌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호철은 여기에 주저앉지 않는다. 그는 이 황폐한 터전에 새로운 뿌리내리기 작업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호철의 초기 작품들은 대개 체험이 작품의 주된 소재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데뷔작인 「탈향」에서부터 『소시민』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연속선을 이루면서 정점을 향해 상승하는 곡선의 형태를 띤다. 소설 속의 내용들을

다시 새롭게 내용상의 시간적 순서 즉,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재배열해 보면 전쟁 중 북쪽 고향에서의 일(특히 북한 지역의 국군점령기), 전쟁에 연락병으로 참전한 일, 포로 생활 경험, 부산 피난지에서의 생활, 분단 고착화 이후 남한에서의 정착 과정의 차례이다. 이제 다시 이 같은 사건의 순서에 따라 작품을 재배열해 보자. 「백지풍경」, 「만조」가 북한 지역을 국군이 점령하게 됨에 따라 지주 집단의 몰락과 잠시간의 회복,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한 한 동네 사람끼리의 반목, 갈등, 긴장 등 작가의 고향에서의 체험을 그렸다면, 「부군(浮群)」은 전쟁에 참전해 연락병으로 활동한 경험을 그린 작품이다. 이후 포로 생활의 경험은 「나상(裸像)」에 형상화되어 있으며, 부산 피난지에서의 생활은 「탈향」, 「무래도 제2장」, 『소시민』에 잘 나타나 있다. 소설가로서의 이호철의 첫 작품은 「탈향」이다. 제목만으로도 우리는 데뷔기의 그가 6·25로 인해 잃은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작품의 제재로 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실향이라는 충격이 짧은 시간에 쉽게 상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거라는 사실은 분명한데, 20대 초반의 나이에 타향에 단신으로 내던져진 입장은 이후의 그와 그의 작품세계를 규정하는 숙명적이고도 결정적인 것이다. 즉, 6·25와 함께 맞은 탈향이라는 이 돌연한 상황과 그에 따른 피난민 생활이 작품제작 동기가 되고 그 내용의 축이 되어 나타난 것이 이호철의 초기의 문학이다.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떠밀려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고향, 그러나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는 고향, 그래서 이제는 버려야 하는 고향, 그렇기에 「탈향」에서 “향”을 현실논리에 떠밀려 “탈”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떠밀리는 느낌이고 그래서 우울하고 결국엔 ‘나의 통곡으로 이어진다. 그들에게는 탈향이 상승의 차원이 아니라 전략의 전조로 비추어지기 때문이다.

실향민에게 고향에 나,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는 생각은 그들이 고향을 낭만적인 곳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현실적 삶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 쟁겨두어야만 하는 또는 미리 마련하고 있어야만 하는 실제적 조건들이 있는 곳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그 실제적 조건이란 삶의 현실적 기반인 집, 농토 혹은 직장, 그리고 사람들, 그것들과의 부대낌에서 얻어지는 사랑, 희망, 보람, 그리고 슬픔, 분노까지 그 모든 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고향의 상실감은 점점 더 고향이라는 실체를 환상적인 상태로 바꾸어버리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는데 그것은 ‘지금·여기’, 현실이 주는 고단함과 반비례하게 된다. 즉 ‘지금·여기’의 삶이 고단하면 할수록 고향은 더욱 환상적 그리움의 대상이 된다. 그것은 실향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더 확대 재생산하게 되는 이미지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여기’의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그 질감은 달라질 수 있다.

‘지금·여기’의 조건이 달라진다는 것은 달라진 세상의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이다. 「탈향」은 현실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조건, 곧 당대 사회에서 자기의 타자로서의 조건을 인정하고, 그러한 조건을 넘어서서 새로운 생활양식의 주류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현실 논리의 자각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잊혀지지 않는 고향의 모습은 비장하며 이호철이 소설 속에서 새로운 현실의 조건들을 모색하는데 있어 굳건한 토대로 자리한다.

그러기 때문에 「탈향」의 네 짧은이를 통해 작가의 내면의식을 살펴보기란 어렵지 않다. 나를 비롯하여 하원, 두찬, 광석은 모두 같은 고향 출신이다.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이들이 가진 깊은 유대감의 뿌리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유대감은 타향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있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들의 관계가 유지되는 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은 아직 유효해 보인다.

중공군이 밀려온다는 바람에 무턱대고 배 위에 올라타긴 했으나, 도시 막막하던 것이어서 바다 위에서 우리 넷이 만났을 때 사실 미칠 것처럼 반가웠다.

야하 너두 땀구나, 너두, 너두.

배칸에서 하루 저녁을 지나, 이튿날 아침에는 부산 거리에 부러졌다. 넷이 다 타향 땅은 처음이라, 마주 건너다보며 어리둥절했다. 마을 안에 있을 땐 이십촌 안팎으로나마 서로 아접 조카 집안끼리였다는 것이 이 부산 하늘 밑에선 새삼스러웠던 것이다.

“야하, 이제 우리 넷이 떨어지는 날은 죽는 날이다. 죽는 날이야.”

광석이는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지껄이곤 했다.<sup>2)</sup> (강조는 인용자)

2) 「탈향」, 『소슬한 밤의 이야기』, 청아출판사, 1991, 38면.

그러나 부산에서의 삶은 고향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네 젊은이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이 점을 깨닫게 되는데, 위의 인용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화자는 고향 마을에서 서로가 한 집안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부산에서는 새삼스러웠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광석이는 “우리 넷이 떨어지는 날은 죽는 날”이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두 진술의 공통점은 험한 세파를 헤치고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넷이 늘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기억을 간직함으로써 이전의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탈향」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하원이는 어려서인지 수시로 떠나는 고향 이야기를 하며 훌쩍대곤 한다. 그러나 하원이의 버리 속에 남아있는 고향은 전쟁으로 인해 훼손되어지고 이념으로 인해 찢어진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안온하던 시절의 모습이다.

우리들 중 가장 어린 하원이는 늘 무언가 풀어헤치듯,

“아하, 부산은 눈두 안 온다. 잉, 어잉 아아, 벌써 자니 이 새끼, 벌써 자니, 진짜, 잉. 광석이 아저씨네 움물 말이다. 눈 오문 말이다. 뒤에 상나무 있잖니? 하얀 양산처럼 되는, 잉. 한번은 이른 새벽이었는데 장자골집 형수, 물을 막 첫 바가지 푸는데 푸뜩 눈뭉치가 떨어졌다. 그 형수 뒷머리를 덮었다. 내가 막 웃으니까, 그 형수두 눈 떨 생각은 앓구, 하하하 웃는단 말이다. 원래가 그 형수 잘 웃잖니?”<sup>3)</sup>

위의 글에서 하원은 부산을 ‘눈’이 내리지 않은 삭막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부산은 늘 고향 원산과 상반되는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이를 가장 극명(克明)하게 드러내는 것이 부산에 눈이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고향에서는 지천(至賤)이던 눈이 부산에는 없는 것이다. 하원은 이 같은 단순한 사실로부터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하원에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 네 젊은이 역시 하원과 같은 순진한 눈으로 현실을 바라본다. 그렇게 때문에 부산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복잡성이나 타락성과는 무관하게 고향에 대한 추억으로 곱씹으며 살아간다. 이것은 그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에 있는 ‘귀향’의지가 내면화된 것으로 볼

3) 「탈향」, 36면.

수 있다.

“야하, 언제나 고향 가지?”  
 두찬이는 혀 꼬부라진 소리로  
 “이제 금방 가게 되잖으리”  
 “이것도 다아 좋은 경험이다.”<sup>4)</sup>

작가 자신이 분단에 대해 철저하게 부정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런 대사는 다분히 감상적인 처리라는 느낌을 주기는 준다. 하지만 이호철이 처한 특수한 개인적 환경을 고려한다면 분단상황 아래서의 ‘자신에 대한 삶의 각성’이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서도 암시한 바와 같이 첫 작품에서의 이런 각성의 자세는 이후 모든 이호철 소설의 토대를 형성한다. 사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네 젊은이가 이후에도 그의 소설 곳곳에 재현되고 있는 점은 ‘탈향’의 의미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아직까지도 이 곳 남한은 임시하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광석이 죽을 때 외면했던 두찬이도

“내 이제 무신 낮쪽으로 동네 가간. 어허허허..... 광석이야..... 광석아, 하아.”<sup>5)</sup>

외치며 운다. 하원이 역시 집을 짓긴 짓지만 ‘동네 갈 땐 꼭 같이 가자’고 되뇌인다. 결국 그들은 막연하지만 언젠가는 돌아갈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집에 돌아가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하면 모두 굉장히 웃을기다. 더구나 어머니 허리가 끊어지게 웃을 기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고 연방 지껄이며 혼자 히득히득거렸다.<sup>6)</sup>

그러나 이들의 귀향의지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된다. 형제처럼 서로를

4) 「탈향」, 36면.

5) 「탈향」, 51면.

6) 「나상」, 58면.

의지하던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제각기 살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한다. 광석이가 열차사고로 죽은 후 두찬이의 방황하는 모습을 못마땅히 여기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하원의 말에 대해 무의식중에 지껄이는 ‘나의 말에 이 작품의 주제가 함축되어 있다. 즉 두찬이와 떨어져서 둘이만 살자는 것, 고향에 가서는 광석이와 두찬이를 애당초 못봤다고 하자’는 하원의 말에 ‘나’가 자기도 모르게 지껄이는 말이다.

무엇인가 못 견디게 그리운 것처럼 애탔다. 그러나 누가 알랴! 지금 내 마음 밑 속에서 일어나는 돌개바람 같은 것을... 아 어머님! 이미 내 마음 밑 속에선 하원 이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순간, 나는 입술을 악물었다. 외락 하원이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두 볼을 흘러내렸다.<sup>7)</sup>

이 부분은 새로운 현실에 정착하려는 자가 그 일에 소극적이거나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비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복인으로서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려는 작가의 의지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여 그 자존심 까지도 팽개쳐 버리려는 한 인간에 대한 미움과 사랑의 상반된 감정이 미묘하게 교차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실향민으로서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무리 현실이 냉엄하다 할지라도 같은 실향민으로서 깊은 동정심과 동지애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2. 전쟁 후의 사회·정치적 변동

이호철은 고향에서부터 남한생활에 적응해 가기까지 일련의 자기 체험적인 이야기를 소설속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었으며, 이러한 체험들이 『소시민』의 창작에 이르기까지 작품활동의 중심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 같은 창작 경향은 자기체험의 절실성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호철의 경우 그러한 체험이 작품속에서 단순한 주관성을 넘어서 역사적인 중요성을

7) 「탈향」, 52면.



뒹고 있기 때문에, 자서전적인 체험이 주관성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벗어나 객관화된 이야기, 대 사회적인 발화로 전화(傳化)하게 된다. 다시 말해 작품 속의 현실은 주관적 체험에 기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주관적 체험은 동시에 민족 전체가 집단적으로 경험한 역사적 체험이며, 따라서 개인의 체험은 개인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민족사의 문제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이호철의 소설에서 개인적 체험의 보편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시기 이호철 문학이 지닌 의의는 무엇보다도 자기체험적인 이야기가 주관의 과잉이나 추상적 관념의 유희가 아니라 객관 현실과 변증법적인 작용을 일으키면서 리얼리즘 소설로서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호철 문학세계가 지닌 특징이면서 장점이 드러난다. 즉, 이호철은 다른 작가와 마찬가지로 전쟁의 체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특히 그가 월남한 사람으로 남한사회에 적응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것(이는 분단을 기정의 사실로 인정하기까지의 시간적 소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은 전쟁과 분단이 그의 삶을 좌우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체험이 객관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압도할 경우 관념화, 주관화의 경향을 드러내도록 만들기도 한다. 대부분의 자기 체험적인 50년대 소설이 바로 이런 특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호철의 경우 자기 체험이 주관성의 영역에서 벗어나 객관성을 획득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체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한 자기 체험을 관찰자적인 태도로 이야기하는 그의 서사화 방식이 갖는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작품을 통해 살펴보자. 자기 체험을 주관적인 의식을 거쳐 표백화하기보다는 객관화시켜 보여주려는 이호철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 『소시민』이다. 『소시민』(『세대』, 1964. 7.~1965. 8.)은 후방의 사회·정치적 변동을 인물의 상승과 몰락이라는 대립된 측면에서 세밀하게 관찰·분석하였다.

전쟁과 분단소설을 증언하는 이호철 소설은 전쟁의 포성이 들리지 않는 후방의 사회상을 그린 것이다. 『소시민』이 대표적인 예인데, 『소시민』은 부산이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임시수도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두 작품은 후방에서 겪는 전쟁이 어떤 형태의 것이었는지를 일깨워 준다. 또한 그

속에서 사람들의 삶이 전쟁을 통해 어떻게 굴절되고 변형되는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소시민』은 ‘나’의 관찰자적인 시점으로 피난지 부산의 완월동에 있는 한 제면소 사람들에게 대한 ‘나’의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관찰과 보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는 냉혹한 비평안으로 혼란한 사회 속에서 전락해 간 인물들의 군상을 묘사한다. ‘나’는 새로운 시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밀려나는 사람들과, 시대에 영합하나 모순된 사회구조와 왜곡된 삶의 자세로 인해 전락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물들의 소시민적 양상을 제시하고 혼탁한 피난지 부산의 변동상을 고발한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대체로 ‘고향 상실’이라는 이른바 ‘부재자’(혹은 부재하는 본질)에 대한 작가의 염원을 담고 있다. ‘부재자’는 실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어떤 기준을 뜻한다.<sup>8)</sup> 유토피아적 이념과도 같은 ‘부재자’에 대한 염원이 초기작 이래 이호철 소설의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

여기서 소시민이란 사회계급적 차원의 뼈뼌부르조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호철은 스스로 소시민의 의미에 대해 “갑자기 뿌리뽑힌 뜨내기 인생”이라 설명하고 있는데, 소시민은 이념적 계층이나 계급의 의미를 떠나 역동적인 역사의 주체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물들의 군상(群像)을 의미한다. 이때 ‘나’ 역시 혼탁한 현실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무질서한 성관계를 이루거나 확고한 가치없이 타협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점에서 다른 인물들과 다름없는 소시민적 인물이다.

『소시민』의 등장인물들은 부박하고 혼탁한 시대상황 속에서 퇴색해 간 사람들로서 변동기 사회의 한 축소(縮圖)를 이룬다. 작가는 변동기 사회를 역사의 주체로서 역동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 속에 함몰되어 퇴화되어 가는 인물들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소시민의 정체성을 밝히고, 인물들의 전락상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혼탁하고 모순된 변동기 사회현실을 증언하고 있다.

8) 여기에 대해서는 아드르노, 홍승용 역, 『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84, 164~172면 참조.

생각하면 이러한 시국판에 삼일장이라는 한가한 의식부터가 일봉의 이방 지대 같은 느낌을 일게 하였다. 일선에서는 여전히 장렬한 전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하긴 이런 판국에 거창사건의 보고를 비공개 회의에서 듣고 있는 국회라는 곳도 일종의 이방 지대나 다를 것이 없긴 없을 것이다. 신성모 국방과 김법무가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이틀 전에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어느 동네의 일이냐는 듯, 그런 일에는 누구 하나 아랑곳하지 않았다.<sup>9)</sup>

남쪽의 최후방지인 부산은 인민군은 군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지루한 줄다리기조차 감지되지 않는 곳이다. 일선에서는 전투에 여념이 없고 국방장관과 법무장관이 사퇴하는 정국 속에서도 이곳에서는 여전히 삼일장은 열리고,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일상의 날들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쟁의 포화는 아득히 먼 곳의 일로 여겨지고 전혀 실감이 나질 않는다. 사람들은 피난지 부산에서 자본주의 메커니즘의 전개를 경험하며, 점차 그 메커니즘에 굴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요컨대 그 상황의 메커니즘이 창조적인 것이나, 해체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새로운 인격의 유형이 빚어지고 하고 전면적인 인격의 해체가 야기되기도 한다. 인격의 해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도 바로 그 사회 구조의 해체된 부분에서부터 비롯된다. 구조의 해체가 폭발성을 지닌수록 그 속에서의 인격의 해체도 폭발성을 지닐 것은 당연하다.

부산 자유시장의 폭발적인 비대는 곧 우리 구조의 폭발적인 해체와 양면을 이루는 일면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완만한 해체 과정을 겪고 있던 이 땅의 전 구조는 그 첨예한 부분에서부터 자유 시장의 소용돌이에 휘어 감기고 말았다. 그리고 그것은 부산 정계와 부산 인심에 그대로의 열면 그늘을 내리고 있었다.

(.....)

모든 것은 그저 소용돌이였고 불안정한 임시 임시의 성격을 지녔고 뜨개기 부유층조차도 고독하고 불안함 밤잠을 자야 했다. 사회적 무정부 상태는 사회 내의 도처에 큰 아가리를 뚫어 놓았고, 이러한 공동(空洞)은 금시금시 탁류에 찬 잡것으로 들이차고 있었다.<sup>10)</sup>

『소시민』의 공간적 배경인 부산은 피난민과 월남민이 생존을 위해 찾아든 대한민국 정부의 임시수도이다. 그래서 부산은 전쟁이라는 사회·정치적

9) 『소시민』, 『소시민/살』, 문학사상사, 1993, 74면.

10) 『소시민』, 216~217면.

소용돌이와 함께 사회전체의 지각변동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다. 전쟁으로 인해 국가기간 산업이 대부분 파괴된 상태에서 전시의 부산 경제를 지탱시켜 준 것은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원조물자였다. 생산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사는 새로운 삶의 수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상업자본의 성장을 통해 전쟁경기가 때아닌 호황을 누리게 하는 기현상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편, 당시의 상황이 전쟁으로 인해 이전의 모든 가치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체계가 성립되는 과도기에 처해있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과도기란 구세대적인 양식과 새로운 세대의 양식이 혼재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때문에 과도기란 늘 복잡하고 유동적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계층과 인격의 해체과정을 경험하도록 한다. 다음의 인용문에는 이러한 과도기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미국 물자는 부산 바닥에도 고르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논리를 좇아 지그재그를 이루고 있다. 그 물자를 둘러싸고 새로운 퍼나는 경쟁이 벌어지고, 새로운 뜨내기 부유층이 형성되어 갔다.

결국 부산은 일선과는 다른 양상으로 밤마다 타오르고, 여기서부터 한국 사회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고 있었다. 살아갈 기력이 없는 퇴물들은 슬러 가고 기력이 있는 자만 남아 나게 마련이었다.<sup>11)</sup>

이호철은 『소시민』에 등장하는 인물군의 변화 양상을 통해 사회상의 변동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에는 현실 논리를 감각적으로 체득하면서 새로운 생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들이 전쟁 기간 중에서도, 그리고 ‘타자’로서의 자기 조건을 넘어서서 주류로 변모해 가는 모습은 살아남은 자의 이유를 극명히 보여준다.

이 소설은 50년대 전란 중의 부산 완월동 제면소라는 상황 속에서 각양각색의 과거를 지니고 있는 인물들이 벌이는 삶의 쌍곡선이 화자인 ‘나’에 의해 냉정하게 관찰되고 보고되고 있다. ‘나’는 오갈데 없는 이북 출신의 월남인으로, ‘험한 세상 건너가는 두터움이 어느새 몸에 배어’ 나름대로 현실 적응을 해 나가는 중이다. 나는 제면소에서 만나게 된 인물들의 삶의 모습

11) 『소시민』, 80면.

을 보면서 보다 분명하게 현실 논리를 파악하게 된다. 「나상」에서의 그 ‘표준에 적응하는 능력’의 실제적 국면을 제면소라는 공간에서 만나는 인물들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나가 만나게 된 인물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 전락하는 인물과 상승하는 부류이다. 죽은 뒤에야 동경 일교 대학 출신이며 좌익 운동에 투신했던 경력도 있음이 밝혀진, 살아있을 때 제면소의 천덕꾸러기였던 강 영감, 대구사범을 다닌 경력의 남로당 간부 출신의 정씨, 김씨에 농락당하고 남편을 전쟁터에 잃어버리고 결국 술집에 까지 나가게 된 순진했던 천안색시 등이 전락하는 인물들이라면, 과거에는 정씨 밑에서 남로당 활동을 했었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현실에 적응해 나가는 김씨와 ‘나의 먼 고향 친척인 광석이 아저씨는 상승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에의 적응력이 뛰어난 김씨가 상승하는 것을 통해 김씨와 같은 인물군이 전쟁의 소용돌이가 끝난 이후 사회 전체의 새로운 중심세력으로 성장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작가가 인식하기에 ‘잡 것들로 들이찬’ 세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김씨와 같은 인물뿐이다.

“요즈음 무슨 사업을 하나요?”

“국수 공장 한다는 것도 집어치구, 무슨 큰 줄을 잡았다나봐유. 정치를 한다나유, 우스운 얘기가, 그전에 하던 정치 사업은 진짜 목숨을 건 정치 사업이구, 요즈음의 정치 사업은 장사 겸, 돈벌이 겸, 살 방법이래나 봐유. 나야, 그저 그렇다나 그렇게 알 뿐이지유.”

잠시 우리는 남부민동 뒷산 언덕에 또 나란히 앉았다.<sup>12)</sup>

그런데 결국 김씨가 선택한 일은 이승만 정권을 돕는 극우청년단의 간부였다. 그것은 김씨의 말처럼 ‘장사겸, 돈벌이 겸, 살 방법’이 되는 일석삼조의 선택이었다. 김씨가 보기에 현실을 지배하는 논리는 거창하고 그럴듯한 신념이나 정의가 아니라 동물적인 존재의지 자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 남기 위해 부와 권력을 좇고 그것에 기생하는 행위는 전혀 비난받을 만한 일이 못된다.

12) 『소시민』, 244면.

한편, 나의 고향 아저씨 광석은 국제시장에 점포를 내면서부터 북에서 좀 더 일찍 나오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장사의 이치를 깨치고 보면 부산처럼 살기 좋은 곳도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해 말끝마다 칭송하고, 모든 인습적인 것, 농촌적인 것을 타기(唾棄)하려 들고 가장 진취적인 사람인 양 행동한다. 결국, 김씨와 광석은 극우세력에 편입함으로써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피하였다.

반면, 주인 내외를 비롯한 정씨, 광씨, 천안 색시 등은 본래의 소박함과 삶의 의지를 상실함으로써 점차 무기력해지는 부류이다. 즉, 새로운 가치질서에 동화하지 못하고 현실에서 도태되어 좌절하는 부류인 것이다. 그러나 두 부류의 인물군 모두 소외된 자들이라는 현실조건에서이다.

정씨에게는 확실히 이국적인 냄새가 풍겼다. (.....) 그의 투에는 어디선가 다 쏟아 버리고 난 허한 기운이 떠돌았다.<sup>13)</sup>

나는 김씨의 이런 모습에서 섬뜩한 단단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도 결국 지난 날 그를 떠받들어 주고 있던 모든 발판이 와해된 속에서 이렇게 일개 소시민으로 낙착이 되고 있는 것이었다.<sup>14)</sup>

이런 김씨에 휘어들고 있는 천안색시에 나는 어느 정도 공감과 처량함을 반반으로 가지고 있었고 천안색시 속에서 한 시대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느낌이었다.<sup>15)</sup>

(광석이 아저씨) 고향에서는 국군이 입성하자, 대한 청년단장이라는 벼락감투를 쓰고 기세가 등등했었는데 몇 달지간에 저렇게 초라해져 있는 것이었다. (.....) 어 느새 저렇듯 걸가죽만 남은 사람처럼 되었다.<sup>16)</sup>

떠돌이, 실항민, 몰락한 좌익 분자, 이러한 소외한 인물들이 전락과 상승으로 극명하게 갈려지게 되는 것은, 그들의 현실인식 때문이다. 상승하는 인물들은 자신의 과거나 현재의 조건에 대해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는다. 그

13) 『소시민』, 48면.

14) 『소시민』, 62면.

15) 『소시민』, 82면.

16) 『소시민』, 124면.

들은 자신들의 과거가 이제 어떤 실제적인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 현재 자신의 위치는 몰락하고 소외된 ‘타락’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스스로 그 타자성을 넘어서서 새로운 주류에 편입하는 것밖에는 달리 살아남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반면, 전락하는 부류는 과거의 신념이나 생활방식에 매몰되어 현재의 처지를 인정할 수 없는 인물이거나 그저 수동적이기만 할 뿐이어서 강한 자의 이끌림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물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과거를 더 이상 주장할 수도 없고, 예전의 생활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현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과거에의 집착이 너무 강하다. 결국 그들은 퇴행하고 전락한다.

이는 작가의 현실 인식을 드러내는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이다. 이호철은 타락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도덕적 타락과 정신적 공황을 경험하게 된다고 본다. 그런 까닭에 이호철 소설에서 현실의 부정성을 극복하는 이상적인 인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호철 소설에 등장하는 부정적인 인물들을 통해 현실의 모순을 극복할 가능성을 찾게 된다. 그것은 인물들이 처한 부정적인 사회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의 해법을 사회 구조적인 것에서 찾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한편, 상승과 몰락의 과정이 마무리되었을 때, 『소시민』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인물들은 전혀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된다.

상승의 양상		몰락의 양상	
김씨	좌익 조직원에서 우익청년단체육부장으로 변신하여 미군 부대와 정치권력을 끼고 이권을 쥔김.	정씨	남로당 간부 출신으로 과거의 신념을 버리지 못하다가 우물에 빠져 죽음
		주인 내외	전시 경기로 한때 상승하는 듯 하였으나, 결국 사회의 중심부에서 밀려남.
광석	월남민으로 배금주의와 물신주의에 젖은 인물, 귀향을 포기하고 국제시장에 점포를 내고 장사를 시작함. 우익적 성향	곽씨	과거 집안 내력을 자랑삼아 얘기하는 인물, 군기피자로 숨어 생활했으나 나중에는 군대로 끌려감.
		천안색시	김씨에게 휘말려 식모에게 미군 상대 댄서로 전락함.

전략과 상승이란 거친 이분법적 범주가 포괄하지 못하는 독특한 인물이 있다. 제면소의 최고참 일꾼인 신씨. 착실하고 온순한 성품에다가 ‘일 자체에 집착을 하고 일하는 데에 사는 맛을 느끼는’, 그저 충직한 일꾼일 뿐인 평범한 그의 인쪽에는 놀랄 만한 내면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아직도 왜정 말기의 그 전시(戰時)’에 포박당한 의식의 불구자로 과거를 사는 인물인 것이다.

그가 말하는 역양에는 그 시절을 무척 그리워하는 듯한 투가 완연하게 노골적으로 서려 있었다. 당시 일본군 사령관들의 이름이나 전투 사정도 놀라울 만큼 소상했고(……) 그 자신이 속해 있었다는(……) 부대의 사단장 야나다(野田) 중장 등의 일화들도 매우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 게다가 되도록 미화하고 신격화시켰다. 그러나 이런 그가 오늘의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까마득한 백치인 것이다.(……) 결국 그에게는 태반의 사람들에게 있어 이미 자명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군국주의라고 불리는 일본군이 아직까지도 절대 절명의 신화로 그의 속에 살아 있는 것이다. 이견 놀라운 일이었다. 이런 그에게 있어, 해방 후에 몰려들어온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소음일 것은 너무나 뻔하였다.<sup>17)</sup>

과거에 불박혀 있기에, 그가 ‘전쟁을 무슨 대규모의 홍수나 화재 같은 것으로 단순 소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

시간의 힘은 위대하여 거의 언제나 과거를 미화시킨다. ‘그것이 어떠한 내용의 것이든 어린 시절을 애뜻이 그리워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고유한 권리다’라는 말은 이 같은 사정과 관련된 것이다.

당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던 친일 잔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씨의 경우 말고는 한마디 언급도 없어 기이한 느낌조차 주는 이 작품에서 설정된 신씨라는 인물은 작가가 작품 속에 담지 못한 친일 잔재 문제를 압축하는 상징물이라 판단된다.

이것은 친일 잔재 문제가 지독하고 끈질기게 우리의 내부에 파고들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이 인물 유형은 소설에서의 일제 잔재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접근이 친일과 문제에 집중되었음을 생각하면 대단히 의미 깊은 성격 창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17) 『소시민』, 224~225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난 직후인 50년대인들의 의식과 감각, 또는 생활 속 일체 잔재의 양상은 어떠하며, 반세기가 흐른 지금의 경우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등에 대한 섬세한 점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협소하고 폐쇄된 공간에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집중 진열함으로써 이 작품은 부산 사회의 혼란상을 혼란이란 형식 속에 담아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호철은 『소시민』에서 부산 완월동을 소설공간으로 하여 사회변동과 그 본질을 짚어내고 있다. 전쟁으로 야기된 현실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계급 계층구조의 분화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 3. 분단극복의 대안 제시

이호철의 풍자적 시선은 그가 결코 회복하지 못한 실향의식을 저변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 자못 냉소적이다. 그리고 바로 그 냉소적인 요건 때문에 자의식에 더 큰 상처만을 안겨주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풍자성은 그가 택한 자유, 뿌리 내리기 힘든 현실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자의식 그 자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작가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은 허무주의뿐이다. 이호철은 그의 소설이 안고 있는 풍자성과 자의식을 끌어안고 허무주의의 일상성에 함몰될 위기를 맞게 되지만, 현실의 삶에 대한 그 나름의 법칙성을 구상하고 있는 「큰 산」을 통해 그 위기를 이겨낸다. 소설 「큰 산」은 일상적인 삶의 국면을 균형 있게 처리한 문제작이다. 이 작품에서 이호철은 그의 뿌리내리기 작업이 요원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삶의 전체적인 균형과 윤리적인 요건까지도 보다 달관적인 자세로 조망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한다. 「큰 산」으로 상징되는 가치체계에 대한 그의 인식은 삶의 문제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의 태도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썸이다.

「큰 산」은 반성적 인물을 통해 소시민성을 비판함으로써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그가 지금까지 꾸준히 심화확대(深化擴大)해 왔는데, 작가적 인식의 밀도를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 작품이다. 「탈향」 이래 그가 꾸준히 지속해 온 ‘실향민 의식’은 「큰 산」

에 이르러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 작품에서 ‘나’는 외부세계와의 갈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내면을 성찰함으로써 자신을 반성하는 인물들이다. 작가는 ‘나’의 반성을 통해 소시민성에 대해 천착함으로써 분단을 고착화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능동적인 자세를 보인다. 이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소시민성은 가족이기주의, 속물성, 소심증, 기회주의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들은 작품을 통해 분단의 상황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암시된다. 따라서 소시민성을 극복하는 것은 분단의 현실을 타계하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

첫눈이 내린 어느날 ‘나’는 대문 옆 블록담 위에서 ‘웬 흰 남자 고무신짝 하나’를 발견하고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다. ‘나’가 살고 있는 동네는 현대식 교육을 받고 합리적인 사고를 주장하는 중산층의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이면 갖하는 팽파리 소리가 들리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소심해지며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 아내가 그 고무신을 몰래 이웃집으로 던지고 난 열흘 후, 그 고무신은 다시 ‘나’의 집에 되돌려져 있었다. 그 고무신은 이웃집에서 이웃집으로 공전하고 있었다. 모두들 “액은 이웃집으로 옮겨보내고, 제 집은 일단 마음을 놓았던 것”이다.

내 경우 이 ‘큰 산’은 그곳에 그 모습으로 그렇게 있다는 것만으로 항상 나의 존재의, 나를 둘러싼 모든 균형의 어떤 근원을 떠받들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태어난 뒤 가장 먼저 익숙해진 것은 어머니의 젓기습이었겠지만, 두번째로 익숙해진 것은 그 ‘큰 산’이었을 것이다.<sup>18)</sup>

‘나’는 이 일을 계기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에 대해 반성한다. 국민학교 4학년 시절 ‘나’는 밭에 버려진 신작 하나를 보고 공포에 떠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큰 산’이 구름에 가려졌기 때문이었다. 어린 시절 ‘나’의 눈엔 ‘큰 산’이 가려지면, 온 누리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자기자신만을 주장하는 듯이 느껴졌다. ‘나’에게 ‘큰 산’은 “모든 균형의 어떤 근원을 떠받들어 주는 것”으로 각인되었다.

18) 「큰 산」, 『소슬한 밤의 이야기』, 청아출판사, 1996, 141면.

그 ‘큰 산’은 청빛이었다. 서쪽 하늘에 늘 덩더룻이 웅장하게 퍼져 있었다. 아침저녁으로 혹은 네 철을 따라 표정은 늘 달랐지만, 근원은 뿌리 깊게 일관해 있었다. (……) 그 ‘큰 산’은 늘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형태 없는 넉넉함으로 자리해 있었다. 그 ‘큰 산’이 그곳에 그렇게 그 모습으로 깊게 웅거해 있다는 것이 늘 안심이 되었던 것이다.

깊숙하게 늘 안심이 되었던 것이다.

아, 그 ‘큰 산’, ‘큰 산’<sup>19)</sup>

‘나는 사람들이 모두 어떤 불안과 공포를 지니고, 자신의 안정과 이기만을 생각하는 원인’을 ‘큰 산’, 즉 근원의 부재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자신과 아내를 위시한 동네 사람들의 이기성을 보며, ‘큰 산’, 즉 근원의 부재를 실향민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시대의 문제로 제시한다. ‘큰 산’의 부재는 근원을 상실한 삶을 의미하며, 그것은 실향민들의 뿌리뽑힌 삶뿐만 아니라 이기적이고 소심한 현대인 모두의 삶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큰 산」은 ‘나’의 반성과 성찰을 통해 현대인의 이기성의 원인이 근원의 상실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이 때 ‘나’의 반성은 모순된 남한의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임과 동시에 극복의 대안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지닌다. 현대인의 이기성의 원인이 근원의 상실에 있다는 주장은 근원의 회복을 통해 이기적이 되어가는 남한의 현실이 극복될 수 있다는 생각과 상통하는 의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호철은 현실의 삶에 대한 그 나름의 법칙성을 구상하고 「큰 산」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건강함과 풋풋함을 지닌 주체는 ‘큰 산’이라는 정신적인 원류를 찾으므로써 가능해지게 되었다. 새로운 주체는 부정적인 세태의 흐름, 습속의 논리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기만 하는, 그래서 소외되고 수동적이지만 한 대다수 민중의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실천력을 지닌 새로운 집단적 주체, 현실에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적응력을 보이면서도 역사의 변혁에 커다란 주체 세력으로 성장해 왔고 그럴 민중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러한 집

19) 「큰 산」, 148~149면.

단적 주체에 대한 작가의 믿음과 지향이 굳건하게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부정적인 소수에 대립되는, 새로운 세상을 위한 변혁적 실천력을 담지한 계층의 다양성과 그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호철의 ‘큰 산’이 의미하는 것은 한 시대의 부정적인 권력과 세력들에 의해 이데올로기화된 세속적인 원칙이 아니라 모든 계층과 집단을 아우르는, 그래서 진정한 동질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토대이다. 그때 그 ‘큰 산’은 단일하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차등과 소외, 반목과 배제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세속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은 인간에 대한 애정을 나타낸다. 그 힘은 나아가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내고 마침내 진정한 실천력을 확보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갈 집단적 주체를 형성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소설 「큰 산」은 일상적인 삶의 국면을 균형있게 처리한 문제작이다. 이 작품에서 이호철은 그의 뿌리내리기 작업이 요원(遼遠)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삶의 전체적인 균형과 윤리적인 요건까지도 보다 달관적인 자세로 조망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한다. ‘큰 산’으로 상징되는 가치체계에 대한 그의 인식은 삶의 문제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의 태도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썬이다.

앞서 살펴 본 분단현실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이제 비로소 균형감각의 회복을 통하여 분단 극복의 의지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호철은 전쟁과 분단의 정황을 자신의 체험을 객관화하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호철이 다른 작가와는 달리 분단문제에 눈을 돌리고 이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거나 이를 구체적인 일상사 속에서 형상화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분단이 자신의 삶을 질곡시키는 구체적 모순으로 인식되었던 작가적 체험이 작품 속에서 객관성을 획득하면서 우리 민족 보편의 체험으로 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호철의 경우 1950년대에 다른 작가와 달리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상대적으로 다른 월남 작가에 비해 북한에서 경험했던 토지개혁의 와중에서 겪었던 체험에 대해 비교적 피해의식이 적었다는 점, 상대적으로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위치(그는 일방적 피해

의식이 적었다)에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기존의 50년대 작품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균형감각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였다. 균형감각은 분단현실의 남과 북을 편협한 시각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화해해야 할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분단극복의 의지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이호철 문학의 소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III. 결 론

기존의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이호철 작품 세계의 변모과정 이 개인 의식을 뛰어넘어 역사성의 의미추구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곧 실향에서 오는 개인적 고뇌를 거쳐 사회내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파악하는 과정이며, ‘소속 잃은 사람’이 인간과 세계를 보는 방법의 심화 확대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호철 문학의 특징을 ‘실향민 문학’이라 한다. 그것은 북한의 혁명과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온 자들의 삶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그는 북과 남이라는 공간적인 단절로 인해 실향민에게 주어진 상실감을 고향 상실의 원형으로 파악한다. 집안, 마을, 민족과 같은 공동체는 너와 나라는 분리 없이 우리라는 소속감과 동질감으로 구성되며, 개인의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바로 이들 공동체를 유지하는 질서에 의해 규정받게 된다.

이렇게 볼 때, 공동체적 윤리 특히 한국 사회에서 봉건적 요소로 치부(恥部)되는 가부장적 질서는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있어서 정체성의 기반이 된다. 이호철에 있어서 고향 상실은 바로 이런 근대에 의해 전근대적 요소가 와해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자기 정체성상실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문학을 단순히 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의 삶에 친착했다는 체면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반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

이호철의 초기소설에서 보여지는 주체정립에 대한 강박한 태도는 공동체의 와해와 구성원들의 분열은 다시 복원하거나 통합될 수 없다는 인식, 다시 말하면 환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불가역적인 것으로

인식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시간의 흐름에 의해 소멸한 것에 대해 감상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것은 중심이 상실된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중심을 만드는 일이며, 개별적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일이다.

전후의 생존 방식은 「탈향」의 ‘나’처럼 고향이라는 끈을 스스로 끊으며 일어서는 주체적인 탈향 의지를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호철의 실향민 의식은 감상성을 벗어나 전후 현실의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문학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소시민/삶』, 문학사상사, 1993.  
『이호철전집 1~7』, 청계연구소, 1991.

### 2. 연구논문

- 구중서, 「삶의 자리 복판의 소설」, 『한국문학과 역사의식』, 창작과비평사, 1987.  
권영민, 「단합과 열림의 변증법」, 『문학사상』 199, 1989. 5.  
김병걸, 「현실을 보는 세 개의 시선」, 『창작과 비평』 41, 1976. 9.  
김상일, 「복수의 시성 - 이호철론」, 『현대문학』 301, 1980. 1.  
김윤식, 「분단문학과 마음의 흐름론」, 『문학사상』, 1993. 6.  
김종철, 「통일과 문학」, 『오늘의 책』, 한길사, 1984. 가을.  
김치수, 「『소시민』의 의미 - 69년 작단의 문제작」, 『월간문학』 15, 1971. 1.  
김홍규, 「일상과 역사」, 『세계의 문학』 1, 1976. 9.  
박혜원, 「한국 귀향소설 연구 - 이호철, 이범선, 하근찬을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백낙청, 「작가와 소시민 - 이호철의 작품세계」,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창작과 비평사, 1985(『문』, 민음사, 1981).  
염무웅, 「개인사에 음각된 민족사 - 이호철의 문학세계」, 『소슬한 밤의 이야기』, 청아출판사, 1991.  
이문구, 「큰 산을 품은 큰 산 - 소설가 이문구씨가 본 이호철 선생」, 『산울리는 소리』, 정우사, 1994.  
이보영, 「소시민적 일상과 증언의 문학 - 이호철론」, 『현대문학』 308, 1980. 8.  
이선영, 「한국현대소설과 인간소외 - 50년대의 손창섭과 60년대의 이호철의 경우」, 『인문과학』 24·25합집, 연세대학교, 1971. 6.  
이태동, 「분단시대의 리얼리즘 - 이호철론」, 『동서한국문학전집 23』, 1987.  
임규찬, 「『판문점』, 『소시민』, 그리고 『큰 산』」, 『한국소설문학대계 39』, 동아출판사, 1995.  
임헌영, 「분단극복문학의 새 전망」, 『민족의 상황과 문학사상』, 한길사, 1986.  
\_\_\_\_\_, 「분단시대 소시민의 거울」, 『이호철전집 2』, 청계연구소, 1989.  
\_\_\_\_\_, 「분단의식의 문학적 전개」, 『세계의 문학』, 1977. 가을.

- 전영태, 「역사의 격류 해쳐 나가기」, 『개화와 척사』, 민족과 문학사, 1991.
- 정명환, 「실향민의 문학 - 소시민을 중심으로」, 『창작과 비평』, 1967. 여름.
- 정창범, 「소시민의 한국적 의미 - 소시민론」, 『세대』 28, 1965. 11.
- 정호웅, 「탈향, 그 출발의 소설사적 의미 - 이호철의 <소시민론>」, 『문학정신』, 1992. 7.
- 조동일, 「소시민의 생리」, 『현대한국문학전집 8』, 신구문화사, 1981.
- \_\_\_\_\_, 「사회적인 변동과 소시민의 생리」, 『동서한국문학전집 23』, 동서문화사, 1987.
- 최원식, 「1960년대 세태소설 - <소시민>과 <심천도>」, 『이호철전집 6』, 청계연구소, 1988.

### 3. 국내의 논저

- 강만길, 『고쳐쓴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1994.
- \_\_\_\_\_,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비평사, 1979.
- 김승환·신범순 엮음, 『분단문학비평』, 청하, 1987.
- 백낙청,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I』, 창작과비평사, 1989.
- 송하춘·이남호 편, 『1950년대 소설가들』, 나남, 1994.
-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연구』, 민음사, 1987.
- 게오르그 루카치,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93.
- 리오 로웬달, 유중호 역, 『문학과 인간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4.
- 아서 폴라드, 송낙현 역, 『풍자』,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 N. 프라이,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1993.
- E.M. 포스터, 이성호 역,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3.